

데스크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최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의 SK핸드볼 리그 마지막 경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다. 35 대 23으로 컵러플 대구를 꺾었지만, 애처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경기를 중계한 아나운서의 말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다. "첫 승을 위해 21개의 경기가 필요했다." 한 시즌을 통틀어 20연패 이후 처음 승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냉정하게 사실을 밝히자면, 대구는 2진을 기용했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의 첫 승은 굴욕이었을까, 기쁨이었을까?

광주시도시공사 핸드볼 팀은 2010년 창단했다. 옛 광주시청 팀이 80년대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해 시민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줬던 '우생선의 향수'가 자랑단의 계기가 됐다. 아쉽게도 창단 이후 아홉 시즌 동안 SK핸드볼코리아리그 전적은 144전 12승 130패(2무)였다. 참담한 전적이다. 독하게 말하자면 그나마 칭찬할 점도 '워낙 전하다 보니 상대 팀이 바꾼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도시공사 핸드볼 팀에는 연간 13억 원(광주시 6억5000만 원, 광주도시공사 6

우승보다 값진 1승을 위하여

억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선수 연봉도 최하 3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성적을 내는 팀이 해체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은가. 더 씩씩한 일은 '팀을 앞세라'며 성화를 부리는 팬조차 없다는 것이다. 하기가 광주도시공사에 핸드볼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겠지만.

'시한부' 팀의 예고된 운명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은 현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다. 지난 4월 감독 모집 공고에 따르면 감독의 계약 기간은 시즌이 마감되는 내년 4월30일에 종료된다. 성적을 토대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대조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절리는 대목이 있다. 단서 조항인데,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타 종목 전환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공고를 냈을까마는 감독과 선수 입장에서 보면 팀 해체는 예고된 운명이다. 코칭 스태프를 바꾼다고 해서 팀이 하루 아침에 변할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말은 쉽다 '리빌딩'(Re-building)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스포츠계에선 팔찌 팀이 단박에치고 올라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구단 운영 주체들이 내부적으로 신임 오세일 감독에게 제시한 목표가 '5승'

(전국체전 2승, 리그 3승)이다. 그동안 잡다 못한 광주도시공사가 팀 운영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만류하고도 출한 목표치라고 한다. 하지만, 9년 동안 고작 12승을 거둔 팀에게 한 해 5승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시한부' 운명이 된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든 성적을 짜내려는 주문이라면 '제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외치고 있지 않을까.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의 약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패배의식과 체력 저하, 경험 부족, 팀을 리드할 중견 선수 부재 등등. 진단이 나온 이상 처방은 간단할 수 있지만 단방약은 없다. 당장 우수 선수 몇 명 스카우트한 뒤 체력과 전력을 보강하면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구단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 리그를 치르려면 최소 15명~16명의 선수가 필요한데 도시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12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이 부상 등으로 빠진 상황이다. 이처럼 리그에 뛰어들 형편도 안 되지만 당장 선수를 수혈할 길도 없다. 드래프트와 스카우트 시장은 보통 12월에야 열린다. 야속하게도 '전장'인 SK핸드볼 코리아 리그는 이즈음 시작된다. 역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시즌 5승을 거둔다고 해도 미래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새팀보다 가벼운 그 성적은 팀의 수명을 연장하는 베틀목이 될 수 없다. 내

년에도 시즌이 끝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팀을 해체할 이유는 널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팔찌를 도맡는 팀이라고 해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팀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씨를 말리면서 '우생선'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밥값을 못하면 밥줄을 자르겠다? 어찌 세상이 그처럼 간단하기만 할까?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듯 성적을 내지 못하는 팀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공공기관에서 내세우는 건 곤란하다.

그들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주제넘지만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남기고 싶다. 그대들이 지켜야 할 것은 그대들보다 어린 후배 선수들의 미래다.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로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대들은 직장(실업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을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의 눈망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로 광주 효동초, 조대여중, 조대여고 선수들.

다행히 신임 감독이 부임한 후 선수단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 오늘부터 '애잔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의 팬으로 나서 볼 참이다. 그런 만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에게 시민의 이목을 요구한다. 쉽게 지지 마라, 만만함 팀이 되지 마라. 우승보다 값진 1승을 위해.

社說

지자체들 무엇이 두려워 정보 공개 꺼리는가

행정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가 의무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전체를 공개하는 비율이 되레 낮아지는가 하면 내용은 뻔 채 겹표지만 게시하는 '폼수' 공개도 적지 않다. 따라서 폼수 공개를 보완할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행정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한 1만 5650건의 행정정보 중 8667건을 공개, 55.4%의 공개율을 기록, 1년 전 같은 기간 68.9%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된 문건 중 부분 공개한 것은 390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268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부분 공개도 '공개'로 분류되는 만큼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라고 올려놓았지만 정작 내용은 뻔하고 겹표지만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장흥군이 올린 '정남진 리조트 및 오토캠핑장 군 직영 운영 계획'이나 영암군의 '농민수당 도입 관련 추진 상황', 목포시의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 보고' 자료 등은 겹표지 외에 내용물이 전혀 없었다.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개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들이 아직도 정보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것은 그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희호 여사 영원한 동지 DJ 곁으로 돌아가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가 그제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만에 '영원한 동지'였던 '인동초' 곁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한 이 여사는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생전에 이 여사는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저세상에 가면서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 것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 여사는 "남편이나 저는 호남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 호남인들은 위기 때마다 남편을 일으켜 세워 주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여사는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유학을 마친 뒤 국내에서 여성운동가로서 여성 인권운동을 이끌었다. 이후196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DJ와 함께 '행동하는 양심'으로 거친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 왔다.

특히 군사 독재 시절,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치적 망명을 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어왔던 DJ를 든든히 지켜 주며 두터운 투쟁을 독려했던 이가 바로 이 여사였다. DJ가 타계한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 운동을 자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노구를 이끌고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어린이 돕기 등 김대중 정부가 주창했던 햇볕 정책의 맥을 잇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도 했다.

한평생 독재에 맞서며 여성 인권 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여사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영면에 들었다. 늘 여사의 중심에 서서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은펜칼럼

이희호 여사님, 사랑합니다



최영태  
전남대 역사학 교수

이희호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금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이희호 여사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니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여사님의 명복을 빌며, 훌륭한 삶을 살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저승에서 사랑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만나 다시 제2의 삶을 사시길 바란다.

이희호 여사의 삶은 그 자체로서도 빛났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함으로써 더욱 빛났다. 여성 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나 김대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부산 피난 시절이었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참 후인 1963년

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희호 여사는 기도와 함께 김대중 구명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녀는 전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남편 김대중의 구명을 호소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그에게 정보 산업 육성이라는 영감을 준 것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감옥에서 이 책을 받을 때까지 한 하더에 대한 큰 꿈을 가진 이 남자의 꿈이 꿈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것이 이희호 여사를 움직였다. 인물을 알아보는 그의 해안이 새삼 존경스럽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시대와 전두환 군부 독재 체제하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맞아들었다. 그가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데에는 그 자신의 용기와 인내가 기본적 힘이 되었지만 이희호 여사의 역할도 컸다.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 김대중을 면회한 이희호 여사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의 이런 돈독한 믿음과 중심 잡기는 사형수 김대중

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희호 여사는 기도와 함께 김대중 구명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녀는 전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남편 김대중의 구명을 호소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그에게 정보 산업 육성이라는 영감을 준 것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감옥에서 이 책을 받을 때까지 한 하더에 대한 큰 꿈을 가진 이 남자의 꿈이 꿈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것이 이희호 여사를 움직였다. 인물을 알아보는 그의 해안이 새삼 존경스럽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시대와 전두환 군부 독재 체제하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맞아들었다. 그가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데에는 그 자신의 용기와 인내가 기본적 힘이 되었지만 이희호 여사의 역할도 컸다.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 김대중을 면회한 이희호 여사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의 이런 돈독한 믿음과 중심 잡기는 사형수 김대중

별 금지법 제정, 여성부 신설, 여성재단 발족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비록 단명에 그쳤지만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로 발탁한 것이나 다수의 여성 장관을 배출한 데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

이희호 여사는 항상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유는 그의 활동과 영향력이 이권이나 세를 과시하는 그런 통속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봉사과 헌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거하기 직 전 유언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그를 어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최후를 마쳤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좋아하고 지지한 사람은 행복하다. 두 분을 생전에는 물론이요 역사 속에서 계속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곁엔 삶을 살다 가신 이희호 여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한다. 여사님, 명복을 빕니다.

기고

광주 인공지능 단지, 지역 혁신 성장 선도하길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간 잡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중앙 집권'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였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 균형 프로젝트도 착수하였다.

광주는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지역 중점 사업을 융합하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다. 인공지능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생태계로서 혁신 성장

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플랫폼 조성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도 인공지능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존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격상하도록 서둘러야 하나 아직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가 중요한 분야로 산업 현장에서 확보되는 양질의 데이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산업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 그리고 연구 기관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특정 응용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 광주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중점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감안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4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첫째, 인공 지능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기술-인력 등의 자원과 연구 시설-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하여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지역의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광중점단지 내 과학 기술-ICT 분야 산-학-연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의 중점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분야 280개 중소기업의 기아차 의존률이 76.7%에 달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제품혁신과 비용 절감 등 미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300여 개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광주는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심혈관

센터, 지역 병원 및 300여 개 중소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품질과 시대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이 중점 산업 분야에서 생산 과정 최적화, 제품 혁신,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이 주안점을 가지고 정책의 중심에 서는 것이 진정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균형 발전 사업이 지역 잠재력이라는 토양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지역의 산학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과 지역 산업의 성공적인 융합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無等鼓

'양아치' '찌질이' '달창' (달빛 창녀단) '청와대 폭파' '결레질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막말들이다. 이뿐만 아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한 '골든타임 3분', 세월호 유가족과 5·18 유공자 비난 발언 등 정치권 막말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들의 막말은 그러나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 어렵다. 다분히 '계산된 도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내 편'과 '내 편'을

갈라 지지층 결속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권에서

삼사일언

사자성어로 '막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인지 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한 번의 말을 하기 위해 세 번을 생각해 보라'는 공자의 '삼사일언'(三思一言)은 일상에서 말의 신중함을 일깨워 주는 고사성어다.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이 됐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品格)이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범죄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권에서 균형잡을 잃

은 막말은 상대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와 해치기 십상이다.

정치 지도자의 말에는 좋은 생각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층의 확대도 이어갈 수 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제 삼사일언의 교훈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2-8005	220-0541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0-0663	220-0633	227-9600	업무국
220-0663	예향부	220-0692	220-0551
220-0652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42	사건부	220-0694	다자민실
220-0642	220-0694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